

경남 농어촌공사, 친환경 농업용수 관리 앞장

윤 황철성 기자 | 승인 2025.03.10 22:29

자동살포 수질정화시스템 설치
수질관리 운영비·인건비 절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혁신제품을 도입해 친환경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공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시행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거창군 신원저수지에 태양광 물순환장치와 연동된 수처리제 자동살포 수질정화시스템 2식(2억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설치해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창군 신원저수지는 지난 2022년부터 녹조 대발생으로 저수지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잦았으나, 신규 설치한 혁신제품으로 녹조 대발생 전에 수처리제를 정량 공급·자동 살포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수변구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이번 혁신제품 설치와 운영으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태양광을 이용해 정체된 수체의 순환을 활성화해 조류증식을 억제하고, IoT원격 모니터링 기술로 장치 운영 상태 확인이 가능하게 돼 수질관리 운영비와 인건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역본부는 혁신제품 제공기업과 별도 협약을 추진해 녹조발생 시기에 추가 수질분석을 통해 효과 검증을 해나갈 예정이며,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철성 기자